

# 금융 산업의 업무 영역 조정

임진국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금융 환경 변화와 금융 개혁의 필요성

이제 국내 금융 산업의 구조는 대변혁기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큰 영향 변수는 1만 달러에 달하는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전면적 대외 개방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상반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경제 성숙화에 의한 금융 수요의 변화라는 측면으로서, 경제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하던 금융 산업의 양적 성장 패턴이 경제 저성장에 직면하여 경쟁 촉진과 다양성을 유발시키는 질적 성장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 다른 하나는 성장 산업의 이동에 따른 역동성의 측면으로서, 종래 중후장대한 중화학 공업의 중심 역할이 정보 통신과 여러 첨단 기술 산업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금융 산업의 새로운 성장 유망성을 촉발하고 있다.

금번 금융 개혁의 추진 배경은 금융 기관의 높은 중개 비용 인하, 대외 개방 확대에 따른 금융 기관의 경쟁력 강화, 금융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등이다. 그리고 이에 성공하기 위한 정지 작업으로서, 시장 개방과 함께 경쟁력있는 금융 기관의 육성 차원에서 금융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으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춘

금융 기관들이 활동하는 세계 무대의 규율과 규범을 받아들여 수용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금융 산업은 수요자의 다양해진 니즈의 충족과 정보 통신 기술의 혁신에 따른 금융 거래의 첨단화가 절실하게 되었다.

## 겸업주의의 확대

그동안 전업주의에 입각하여 은행·증권·보험의 3대 축을 유지하면서 이밖에 신용금고, 협동조합 등 지역 금융 기관들이 지방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켜왔다. 금융 기관들의 업무 영역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영업 기반이 협소하였으나, 일정 수익 기반의 확보와 성장의 유지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시장 참여 기관의 증가와 함께 경쟁 심화로 발전에 큰 제약을 받기 시작하였고 금융 기관의 성장 패턴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함에 따라 겸업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겸업주의가 도입되었고 은행·보험의 자회사 방식에 의한 업무 영역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동일 금융 그룹 내에 은행-증권 또는 보험-증권 회사가 같이 존재하게 되었다.

금번 금융 개혁을 통해 겸업주의를 확대시키고 이에 따라 3대 축의 영역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이며, 3대 축의 상호 영역 확대에 따른 겸업화와 자회사 방식에 의한 핵심 업무의 상호 진출과 종합 금융 그룹화가 주목된다.

### 업무 영역 조정의 윤곽

1997년 1월 7일 대통령의 금융 개혁 선언 이후 1월 20일 金改委의 구성, 1~5차 회의가 개최되는 등 신속한 진행을 보이고 있다. 업

무 영역 조정과 부실 채권 처리를 위한 법률 제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가을 국회에 상정하여 연말이나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재경원과 한국은행, 그리고 통상산업부가 자체의 금융 개혁안을 金改委에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각 협회들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요청 사항을 金改委에 제출하였다. 지금까지 각 정부 기관이 제시한 금융 기관간 업무 영역 조정 방안의 내용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금융 기관간 업무 영역의 조정안 내용

구분	업무 영역 조정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채 인수간 업무 허용</li> <li>· 기업의 인수 · 합병 관련 알선 및 자문 업무 확대</li> <li>· 신탁 업무는 단기적으로 실적 배당형보다 장기화되면서 발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자산신탁제도로 전환 추진</li> <li>· 유통 어음 및 금융채 발행 허용</li> <li>· 종업원 퇴직 적립 신탁 세제 혜택</li> <li>· 지방 은행의 업무 구역 완화</li> <li>·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의 회사채 인수 주간사 업무 및 CD표지어음 발행 허용</li> </ul>
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전 업무 관련 외환 업무 확대 및 외화 차입 범위 확대</li> <li>· MMF 도입 허용</li> <li>· CP 매매 · 중개 허용 및 CD 매매 활성화 추진</li> <li>· 자산담보부 증권의 중개 기능 육성</li> <li>· 회사채 발행 허용</li> </ul>
신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 운용에 대한 제한 폐지</li> <li>· 종업원 퇴직 적립 신탁 세제 혜택</li> </ul>
종금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 증권 매매 업무</li> <li>· 주식 인수 주가사 업무 취급</li> </ul>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과 업무 제휴 활성화, 복합 상품 개발</li> <li>· CP 할인, 보험금 신탁, 지급 보증 허용</li> <li>· 생보사의 변액 보험 허용</li> </ul>
여신 전문 금융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 할부금융, 리스, 창투, 신기술 금융 등의 종합 여신 회사로 통폐합</li> </ul>

업무 영역 조정은 단기적으로 은행·증권·보험의 고유 업무는 분업주의를 유지하되, 이해 상충 문제가 적고 고유 업무와 연계성이 있는 부수 업무는 상호 진출을 대폭 허용하는 겸업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리스와 같은 비은행 금융권은 상호 업무 장벽을 허물어 종합 여신 전문 기관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종합 금융업은 3대 축의 겸업화에 따라 겸업 범위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은행·증권사가 보험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겸업화 추세에 발맞추어 은행·증권·보험의 겸영 방식에 의한 부수 업무 영역 확대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이다. 단, 금융 위기시 한 금융 기관의 어려움이 계열 금융 기관으로 확산될 위험이 커짐을 고려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보다 역점이 두어질 것이다.

미국식의 투자 은행은 최근 투자 신탁의 증권사 전환 후 종금사 업무 허용, 투자 은행화 구상에 따라 국내에도 나타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증권사에 지급 결제가 가능한 신상품을 허용하고, 은행에 유가 증권의 인수 업무를 허용하면 상호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표 2〉 주요 금융권별 핵심 업무

금융권	핵심 업무 내용
은행	지급 수단의 발행·교환·결제 업무
증권	주식의 위탁 매매에 관한 업무
보험	보장성 보험 상품의 판매·운영 업무

## 정부의 조정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기대

금융권별 겸업화 방안의 내용은 각 금융권에서 그동안 계속 제시되어온 것인 반면, 상대방 금융권에서는 자체 수익 기반이 되는 영역인 경우가 많아 금융권간 갈등은 쉽게 사라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은행의 업무 영역 확대폭에 비해 보험이나 증권계는 영역 확대 내용에 불만족스러운 상태이다. 정부 당국이 규정하는 업무 영역의 분할과 그 조정 방안이라는 틀이 시장 자율을 최대한 존중한다기 보다 통제하려는 입장을 아직 견지하고 있다는 일부 우려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금융 기관의 신규 진입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허용되는 準則主義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예외적으로 은행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신규 진입, 특히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합작 은행인 한미은행에 대한 삼성·대우간의 경영권 장악 경쟁이 치열한 실정이다. 은행업의 대외 개방이 1998년 말 이루어질 경우 은행에 대한 진입 제한은 그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 투신사의 증권사 전환과 CP 업무 허용, 종금사의 유가 증권 매매 업무 및 주식 인수 주간사 업무 등의 허용으로 미국식 투자 은행화가 당초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기존 증권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금 등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증권사가 투자 은행화할 수 있는 기회는 열어주되, 회사별 업무 특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증권사의 경우에도 장차 업무 특화를 유도하되, 겸업화된 상업 은행, 투자 은행 등 보다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 금융제도 개편은 점진주의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업계간 갈등과 이해 조정 과정에서 일관성을 상실하면서 그 실효성을 상당히 약화시켜왔다. 그래서 金改委가 구성되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업무 영역 조정이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감한 겸업주의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업무 영역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반대의 경우로서는 자회사나 금융 지주 회사의 방식에 의한 상호 진출의 전면 허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 자본의 금융 자본 지배가 끼칠 수 있는 폐해에 대한 염려는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획기적 발전 모형의 제시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은행이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금융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 거래 상의 건전성에 대한 엄격한 감시·감독체계의 구축을 전제로 하여 보다 긍정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태세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적어도 현재 언론을 통해 제시되어 있는 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의 신규 설립 허용 방안은 타 금융업은 대기업의 진출이 무방하

고 은행만은 안된다는 논리로 이해된다. 최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은행의 건전한 여신 정책이나 경영의 투명성 문제는, 소유의 주체에 따른 문제이기 앞서 은행의 자율·책임 경영의 필요성과 감독 당국의 감시 역할 미흡에 있다. 또한 모든 기업들은 주식 시장의 주주들을 통한 경영 감시와 효율성 제고 압력 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영 풍토가 필요하다.

한편, 금융 산업에 있어서 단순하게 세계적인 대형 은행이나 증권·보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에도 무리가 있으며, 대형 규모에 걸맞는 전문화 또한 병행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업무 영역 조정을 통한 겸업화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진전될 대형화가 견실한 전문성 제고도 함께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금융의 관계 재정립에 보다 현실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금융 산업의 역할이 종전의 정부 주도에 의한 재원 조달의 일방 통행식 창구 기능을 탈피하여 자체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자금의 쌍방향 중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내 고객이 외국의 금융 기관을 선호하고 국내 금융 기관을 외면하는 금융 공동화를 막는 길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금융 기관이 국내 영업에 있어서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게 될 경우, 철저한 금융 서비스의 경쟁을 통해 우열이 결정되고 국내 금융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따라서 고객의

확보를 보장할 수 있는 금융 산업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업무 영역 조정의 핵심 과제일 것이다.

### 예상 파급 영향과 대응 과제

우선, 국내 금융 산업들은 경쟁 대상이 쏠 금융권으로 확산된 전방위경쟁체제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권 업계는 투신, 종금, 은행 등과 증권 관련 부수 업무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루어야 할 입장이다. 또한 보험 업계는 장기 보험 시장에서 생·손보간, 은행, 공제 기관 등과 개인 연금 및 고수익 금융형 상품 시장에서 경쟁 심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여신 전문 기관의 대통합을 전후하여 시장 점유율에 대한 선점 경쟁이 예상된다.

은행 산업 내에서는 특수·일반 은행간, 증권 산업 내에서는 증권·투신·종금간, 그리고 보험 산업 내에서는 생보·손보사간에 각각 업무 영역의 통합과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동시에 외국 금융 기관의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금융 기관간 업무 영역의 칸막이가 낮아지고, 상품 개발이나 자산 운용, 영업 한도 완화 등 경쟁 촉진이 예상된다.

금융 산업의 구조 조정에 따라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즉, M&A는 업무 영역 통합의 진전과 함께 적극 활용될 것이며, 신규 진입의 허용으로 발생되

는 경쟁 촉진을 통해 유도될 것이다.

동시에 은행들이 은행 계열의 리스, 할부 금융 등 여신 전문 금융 기관의 합병을 추진하고 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본격적인 은행 지주 회사의 논의가 보다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업무 영역 조정과 관련된 금융 개혁의 추진에 있어서 금융 기관의 진입 문제나 소유 구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 산업내 시장 원리를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 기관의 운용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은 강화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보다 과감한 금융 산업의 구조 개편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도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과잉 경쟁이나 금융 기관 M&A에 의한 경영 불안을 불식시키는 정책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 기관들은 구조 조정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과 금융권간 협의가 필요하며, 금융 개혁 추진에 따라 나타날 구조 조정을 감안하여 업계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시키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조 전환기에 단기적인 자사 이익을 추구하는 자세를 지양하는 대신 경쟁 심화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장 영역의 특화와 금융 기법의 전문성 제고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공시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대내외 신인도를 높이고 신용 등급을 높이는 장기적 안목의 경영 혁신을 실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